



삼성은 사죄하라! 삼성은 즉각 교섭에 나와라!

천안센터 최종범 열사의 싸늘한 시신이 냉동고에 놓인지 33일째. 최종범 열사의 유족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나섰다. 최종범 열사의 부인과 둘째형 종호씨,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50개 단체에서 150개 단체로 확대된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삼성은 열사의 주검 앞에 사죄하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며 당일 오후 바로 삼성그룹 본관 앞으로 향했다.

유족들은 삼성 자본을 향하여 즉시 사죄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관 건물으로 향했으나 앞뒤 확 막힌 서초경찰과 삼성본관 경비들에 막혀 뒤로 물러서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충남, 대전 지역에서 올라온 지회 조합원 다수가 유족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최종범 열사의 유족들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이 사죄하고 교섭에 응할때 까지 이 자릴 지킬 것이다. 이미 전국의 조합원들이 상경하여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서울의 여러 시민들과 대학생들,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삼성 사측과 대화하기 위해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무엇이 두렵기에 그리 회피하려 하는가! 삼성전자서비스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을 고치며 삼성이 지급한 인증서를 받고 일해온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은 당연히도 삼성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종범 열사는 삼성 자본의 잔혹한 노동조합 탄압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싸울 것이며, 모든 각오를 다해 삼성의 사죄를 받아내고 교섭을 이뤄낼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삼성은 각오하라! 우리가 승리한다!

경총, 전국동일 쓰레기안 제시! 문제는 삼성이란 사실 다시 한번 증명하다!

- 사측 교섭위원에게도 줄 수 없는 경총안?

교섭요청을 한 때부터 4달, 임단협 요구안 발생한 후 1달, 회사가 안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며칠 사이 전국 교섭에서 경총은 37개 조항으로 이뤄진 똑같은 단체협약 제시안을 제시했다. 이 제시안에는 임금과 복지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고 노동조합 가입범위, 활동 제한, 해고와 징계, 쟁의행위 시 대체근무 등에 관한 내용만 있었다.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지금 있는 취업규칙보다 더 열악하다. 노예계약 하자는 건가?”, “필요 없는 제시안이다. 다른 문제는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내야 할 건 임금과 복지 안이다.”, “노동자를 위한 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래 기다려서 고진감래(苦盡甘來)를 기대했더니 이걸 고진고래(苦盡苦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엔지니어의 임금은 수리 건의 공수에 따라 분당 225원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다. 이건 전국 엔지니어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체계다. 사측도 분당 225원에 대한 인상률이든 아예 다른 임금체계 든 구체적인 안을 내야한다.

분급 임금, 건당수수료 시스템은 한국 어디에도 없는 임금시스템이다. 실제로는 개별노동자에 대한 도급 형식으로 건당수수료를 주면서 겉으로는 근로계약을 맺고 명목상 임금형식으로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심지어 분당에서는 교섭을 마치려는 순간 사측 교섭위원이 경총 교섭위원들에게 “임금 안 이번에 낸다더니 왜 안 내냐.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당일 오전 분당에서 교섭이 열린다는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고, 사측 제시안을 미리 검토하겠다고 하자 보안사항 이어서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센터 사장들에게서 교섭권을 위임받았다고 했지만 센터와는 전혀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교섭에 대한 모든 오더를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서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에 다름없다! ‘최종범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 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이 우리 모두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문제는 삼성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차기 교섭까지 논의 가능한 개선안을 내오지 않는다면 거짓 교섭권 위임과 교섭해태, 임금 꿈수를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